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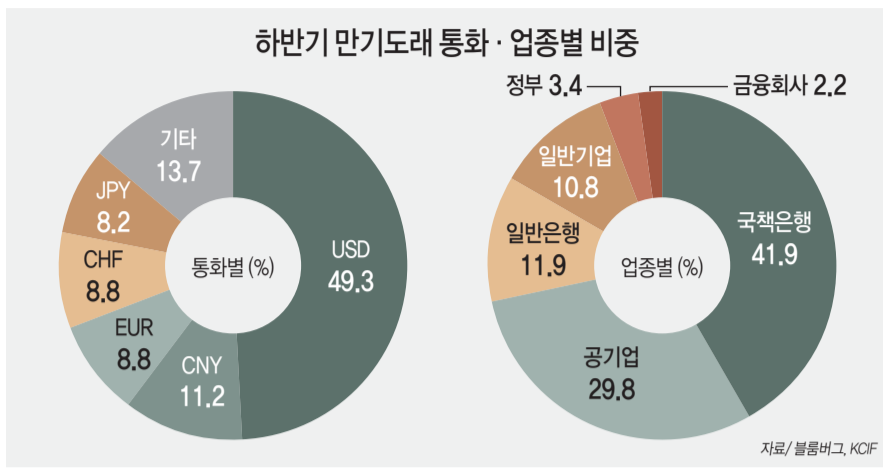
# “韓美 금리역전 폭 확대”... 올 만기 138억弗 외채 ‘부담되네’

G2 무역전쟁에 경기 회복세 더더 기업들, 수출 막혀 ‘부채질벽’ 우려 6~8월 신흥국 기업자금조달 60% ↓

100%다. 재롬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이 9월 기준금리를 올릴 것이라 전망을 보여주는 수이다. 집값 급등으로 서민들은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믿음이 바닥으로 떨어졌고, 각종 성장 지표들은 내리막길을 걷자 한국경제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특히 기업들 사이에선 빛을 내고 싶어도 더는 늘리기 어려운 ‘부채 질벽’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크다. 경기 회복세는 더디고, 미·중 무역전쟁으로 수출길은 막혀있는 등 약재가 쌓여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금리 인상 이후 자금 조달 여건이 악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미 국제통화기금(IMF) 국제금융협회(IIF) 등이 신흥국의 ‘레버리지(차입투자)’를 경고한 터라 주요는 더 위축될 전망이다.

기업들은 세계적인 경기위축 상황에서 자금 사정까지 나빠지면 ‘신용 강등’까지 걱정해야 한다. 회사채 등 자금조달 시장에서 ‘신되는 곧 돈’이다. 아무리 장사를 잘해도 오너나 외부 변수가 터질 경우 기업의 존립 기반이 흔들릴 수 있어서다.



## ◆ 9월 韓美 금리역전 폭 확대 예고...기업들 자금조달 걱정

국내 중견 제조업체의 최고경영자(CEO) A씨. 올해 그의 가장 큰 고민은 G2(미국·중국) 무역전쟁과 법인세, 금리 등 3종 세트다. 달러 값이 오르면서 수출 경쟁력은 좋아졌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확산 양상을 보이면서 수출길이 더 좁아져 어려운 처지다.

A씨는 “트럼프가 중국산에 최대 25% 관세(200억 달러) 폭탄을 부과한다면 상황은 견잡을 수 없게 된다. 투자는 커녕 법인세, 금리 인상 등 빚 부담에 허리를 졸라매야 할 처지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그렇다고 투자를 안 할 수도 없다. 투자를 미뤘다간 하루하루 달라지는 환경 변

화에 도태될 수밖에 없어서다. 투자하려면 당장 돈을 빌려야 한다. 그러나 자금 조달 비용이 걱정이다. 미국 등 세계 각국이 최근 금리 인상에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가산금리 상승으로 신규 자금 조달이 걱정이다”고 말했다.

하반기 국내 기관들이 138억달러에 달하는 외화 채권 만기를 무사히 넘길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 위원들은 8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에서 “향후 데이터(경제지표)가 경제 전망치를 계속 지지한다면 곧 추가 조치를 하는 게 적절하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세계 주요국도 잇따라 ‘돈줄 죄기’에 나서는 모양새다. 중국의 역대 채권 디폴트 증가, 위안화

약세 또한 아시아 채권시장에 부담요인이다.

11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한국계 외화채권 만기 도래액은 138억달러다. 올 해 남은 기간 동안 9월 18억달러, 10월 30억달러, 11월 25억달러, 12월 22억달러의 빚을 갚아야 한다.

국제금융센터 황재철 연구원은 “4분기에 81억달러 규모의 만기가 집중돼 있다. 하지만 미국의 11월 중간선거와 금리 상승 전망 등을 감안할 때 조기차환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기업들의 고민이 큰 이유가 있다. 금리가 오르면 돈 구하기가 더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경기는 위축되고, 기업 구조조정 등 약재가 쌓여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금리인상에 이어 세계 각국이 긴축정책을 펼 가능성이 점증하고 있다.

치솟는 금리는 기업들을 ‘재무리스크’의 트랩(함정)에 빠뜨린다. 전문가들은 ‘금융권 상환 압박과 신용등급 하락→자금 조달 위축→투자 축소→실적 악화’라는 악순환 고리가 경제성장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시장에선 기업들의 레버리지(차입투자)를 경계하는 목소리가 적잖았다. 중견·중소기업은 더 걱정이다.

◆ 신흥국 채무불이행 위험도 국제 시장에서 신흥국 채권투자도 줄

고 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6~8월 간 국제 채권시장에서 신흥국의 기업부문 자금조달 규모는 280억달러에 불과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0% 축소됐다. 정부 부문도 212억달러에 그쳐 40% 가량 감소했다. 모두 2013년 이후 최저 수준이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걸까. 장기간 계속되던 주요 중앙은행의 자산매입과 경제성장이 더 이상 지속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 때문이다. 또 시장금리 상승이나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신흥국의 해외자금 조달 여건도 악화됐다.

시장에서는 신흥국의 채무불이행 및 성장둔화 우려도 커졌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연초부터 다수의 신흥국 정부와 기업이 채무상환 기한 연장과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 있어 당장 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겠지만 자금조달 여건 악화가 장기화되면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캐피탈이코노미스의 윌리엄 잭슨은 “터키 은행권과 아르헨티나 정부의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고, 르네상스 캐피탈의 찰스 로버트슨은 “신흥국 기업 경우 국제 채권시장 의존도가 금융위기 이전보다 높아 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김모호 기자 kmh@metroseoul.co.kr

## 신한금융, 오렌지라이프 인수 후폭풍 KB금융·우리은행도 보험사 눈독

‘리딩뱅크’ 놓고 보험업계 M&A 경쟁 동양·ABL·KDB생명 등 매물 유력

신한금융지주가 오렌지라이프(옛 ING생명)의 새 주인이 되면서 보험업계에 인수합병(M&A) 바람이 이어질 전망이다.

신한금융과 ‘리딩뱅크’ 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KB금융지주와 금융지주사 전환을 추진 중인 우리은행이 보험사 인수 시장의 큰손이 될 것으로 보여서다.

매물로는 중국 안방보험이 대주주인 동양생명과 ABL생명이 유력하다. 이외에도 KDB생명, 롯데손해보험, MG손해보험 등이 잠재 매물로 거론되고 있다.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신한금융이 오렌지라이프 인수로 리딩뱅크 경쟁을 본격화하면서 KB금융, 우리은행 등 주요 금융사가 향후 보험사 인수에 도전장을 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비은행 부문을 강화하고 몸집을 불리기 위해선 인수합병이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보험업계 안팎에서는 동양생명과 ABL생명이 가장 유력한 매물로 꼽힌다.

대주주인 중국 안방보험은 재무상태가 악화되면서 올해 초부터 해외자산 매각에 돌입했다. 안방보험의 경영권을 쥐고 있는 중국 정부는 벨기에 계열사인 피데아보험에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에는 국내 중형 자산운용사인 동양자산운용과 ABL글로벌자산운용의 매각 주관사 선정을 위한 입찰제안 요청서를 국내외 증권사들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자산운용 매각 후에는 생명사 매각에도 나설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특히 동양생명과 ABL생명을 인수하면 단숨에 업계 6위 자리를 확보할 수 있

〈2018년 3월말 M&A 매물로 거론되는 보험사 재무현황〉

회사명	대주주	총자산(억원)	당기순이익(백만원)	RBC비율(%)
동양생명	중국안방보험그룹	305,933	41,937	212.07
ABL생명	중국안방보험그룹	184,973	-3,190	219.66
KDB생명	KDB산업은행	178,882	3,573	154.55
롯데손해보험	롯데그룹	129,392	13,143	163.68
MG손해보험	새마을금고중앙회	34,211	-2,510	83.93

(자료=금융감독원)

어 매력적인 매물이란 평가다. 올해 3월 기준 동양생명의 총자산은 30조5933억원으로 업계 7위 규모다. ABL생명의 총자산은 18조4973억원(업계 11위)으로 상대적으로 작지만 두 회사를 모두 인수할 경우 얘기는 달라진다.

실제로 중국 안방보험은 동양생명과 ABL생명을 묶어 함께 매각할 가능성이 높다. 중국 안방보험은 2015년 6월 동양생명을 인수해 한국 보험시장에 진출했고, 2016년 12월 ABL생명(옛 알리안츠생명)을 추가로 인수했다.

잠재적 매물인 KDB생명도 대주주인 KDB산업은행의 경영 정상화가 이뤄질 경우 매물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산은은 2014년부터 여러 차례 KDB생명 매각을 추진했으나 악화된 수익성과 재무건전성 탓에 모두 불발됐다.

KDB생명의 대주주는 칸서스자산운용이지만 사실상의 대주주는 산은이다. 산은이 KDB칸서스밸류유회사(60.3%)와 KDB칸서스밸류사모투자전문회사(24.7%)를 통해 KDB생명 지분 85%를 보유하고 있다.

KDB생명 매각의 핵심은 가격이다. 산은은 KDB생명에 1조원 넘게 투입했는데 이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할 경우 혈세만 낭비한다는 지적이 불가피하다. 올해 3월

기준 KDB생명의 총자산은 17조8882억원으로 업계 12위에 위치해 있다. 신한금융이 업계 6위였던 오렌지라이프를 약 2조3000억원에 인수한 것에 비춰볼 때 각각은 1조원을 웃돌 것으로 보인다.

롯데손보도 가능한 매물 중 하나다. 롯데손보는 롯데그룹이 지주사 체제로 전환하면서 금융 계열사 지분을 2년 이내에 처분해야 하므로 전젠가를 팔릴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있다. 공정거래법상 일반주주는 비금융지주회사는 금융계열사를 소유할 수 없다.

다만 지난해 말 2대 주주였던 대흥기획이 보유한 롯데손보 주식을 부산롯데호텔이 인수하면서 매각설은 줄어든 상황이다.

MG손보는 매각에 난항을 겪으면서 유상증자로 방향을 틀었지만 대주단이 매각을 고집하고 있다. MG손보의 지분 93.93%를 보유한 곳이 사모펀드(PEF) 자베즈파트너스이지만 자베즈파트너스의 최대주주는 새마을금고중앙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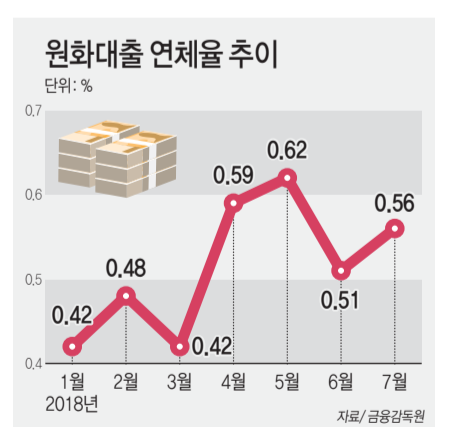
자베즈는 83%까지 떨어진 지급여력(RBC) 비율을 높이기 위해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유상증자를 요청했으나 대주단은 자베즈 측에 손을 떼고 자베즈제2호유한회사 주식 매각을 통한 기업 인수합병을 요구하고 있다. /김희주 기자 hj89@



갤노트9 S펜으로 셀피 '찰칵' 삼성전자가 11일(현지시간) 인도 방갈로르에 모바일 체험 스토어 '삼성 오페라 하우스'를 개관했다. 방문객들이 '갤럭시 노트9'의 S펜 블루투스 기능을 이용해 셀피를 촬영하고 있다. /연협뉴스

## 조선·車 불황에 은행연체율 수직상승

7월 원화대출 연체율 0.56% 전월말 대비 0.05%p 상승 중소기업 연체율 0.1% 올라



지난 7월 국내은행의 대출 연체율이 한 달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 선박·자동차부품 업황이 악화되면서 중소기업 연체율이 높아진 탓이다.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7월 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이상 원리금 연체기준)은 0.56%로 전월 말 대비 0.05%포인트 상승했다. 지난해 7월과 비교해도 0.08%포인트 오른 수준이다.

신규연체 발생액이 1조5000억원으로 연체채권 정리규모 6000억원을 웃돌았다. 기업대출 연체율은 0.81%로 전월 말 대비 0.08%포인트 상승했다.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은 선박·자동차부품 제조업 영위 업체를 중심으로 신규연체가 발생하면서 전월 말 대비 0.10%포인트 상승한 0.58%로 집계됐다.

대기업대출 연체율은 1.79%로 전월 말 대비 0.01%포인트 올랐다. /안상미 기자 smahn1@

가계대출 연체율 역시 0.27%로 전월 말 대비 0.02%포인트 상승했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19%로 전월 말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반면 신용대출 등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가계대출의 연체율이 0.44%로 전월 말 대비 0.04%포인트 상승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향후 시장금리 상승 등에 따른 연체 증가에 대비해 신규연체 발생추이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